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0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교구 활성화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

각 교구마다 단합 대회·야외 예배 행사 태신자 초청하여 배가운동에도 한 몫

우리 교회 각 교구는 5,6월 교구 활성화 차원에서 단합 대회, 야외 예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행사를 치른 교구도 있지만, 6월까지 각 교구별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 행사는 점차 증가되어가는 교구 식구들의 친교와 교회 사랑의 일환으로서, 교구 활성화가 바

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판단 아래 마련된 것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각 교구에서는 행사의 의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배가운동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몰랐던 내 이웃의 형제를 새삼스레 알게 되는 큰 유익의 잔치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 교구내에 있으면서도 구역 식구 이외엔 별로 접촉이 없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송하며, 손을 잡고 심신의 단련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지는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충현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웃 사랑 실천에 온 성도 적극 동참

전국 교회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과 LA 교민 돕기 구호 헌금에 충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도를 본받아 적극 참여하였다. 이에 교회는 이미 한국 기독교 재미교포 재해 긴급 대책위원회에 2천만원의 보냈으며, 오는 26일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본부에 2천만원을 보낼 예정이다.

선교세미나 서울 집회 내일 우리 교회서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의 일환으로 총회 선교부가 주관하는 선교 세미나 중 서울 집회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에서 김주경 선교사와 이준교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한다.

우리 교회 김영삼 장로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



우리 교회 시무장로이며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인 김영삼 장로가(64세) 지난 5월 19일 있었던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천 4백 18표(66.3%)의 대의원 지지표를 획득하여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성경연구원 수료예배 오늘 저녁 본당서

성경연구원이 오늘(5월 24일) 저녁 7시 30분 수료 예배를 드림으로 종강한다.

지난 3월 3일 개강했던 이번 학기를 통하여 성도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연구원을 수료하는 성도는 교사양성부가 119명, 찬양대원 양성부가 29명, 주간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가 460명 총 608명이다.

다음 학기는 오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충현프리즘

◎...지난 주간(5월 18일 ~ 21일)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대회 및 제29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기도회 사상 유례 없는 4천 여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석한 이 기도회는 교단 발전, 개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가 뜨겁게 일어났다.

기쁨부는 주의 종

들의 간절한 기도는 경직되고 교만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경종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겸손을 가르치던 그분의 뜻을 따르며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가 협력하자.

특히 이번 거교단적 행사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와 봉사팀들의 질서 있는 봉사가 상당히 돋보였다. 철저한 안내, 깨끗한 청소, 식사 대접의 질

서 등은 그 동안 몸에 배었던 질서 의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참석한 전국의 목사, 장로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히 안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수고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지난 3월 29일부터 접수된 태신자 카드 접수 현황은 5월 17일 현재 3,939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교회 교인 수

자로 볼 때 태신자 기록은 아주 미비한 사항이며, 배가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가 기도하며 명령했던 배가운동이 일부 교인들만 참여하고 그 나머지 교인들은 외면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로 기도하였던 우리들의 계획들에 차질이 올라 염려스럽다.

아직도 태신자 카드 기록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순종의 미덕이 되 살아 나기를 원한다.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선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 교구 배가, 구역장교육,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5.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6.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7.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8. 교회 배가를 위해 헌신할 좋은 부목사와 여전도사를 보내주소서.
9.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초점



▲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및 제29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총헌강단

신성종 목사

예수님의 3대 시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마4:1~11)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약1:13)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창22:1)라는 말씀을 보면 앞에 언급한 말씀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시험이란 '유혹하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한다'라는 말씀에서 시험이란 '테스트 혹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1. 시험의 종류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의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시험하여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 멸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치 선생이 학생을 시험하듯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 내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닌가, 사탄의 시험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아니면 그 영혼이 죽었다든지 할 때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적고,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책, 능력, 분량에 따라서 시험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한 것 외에는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목사는 더 큰 시험을 당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왕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범죄했지, 평범했을 때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시험의 필요성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시험을 받아봐야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보면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은 물론 십일조 헌금이나 봉사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신이 약하고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우리들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나무를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에서 키워서는 안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장로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시험은 모형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두 아담을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둘째 아담은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조건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둘째 아담은 굶주린 최악의 조건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격적 측면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이라는 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이럴 때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는 말씀을 통해서 육적 양식보다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첫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덧붙이거나 빼면서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정치적 시험이란 인기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세번째 시험은 편의주의적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마4:10).

다음에는 본문이 주는 실천적 교훈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고 있으며 우리들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략하거나 첨가하여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험은 점진성을 가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내들을 보고 각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암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낚시에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때때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신앙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가 오고, 눈이 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거목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해서 품 안에만 품고 있으면 절대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듭니다. 결국 시련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합격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3.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첫째, 예수님께서 인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을 찌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볼 때 첫째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지만, 둘째 아담은 새 창조의 왕이십니다. 둘 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모든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교리적 교훈과 실천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교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첫번째 시험은 경제적 시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육체의 욕망에 호소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인간의 굶주림과 같은 육체의 욕망에 계속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왕이나 육체를 통하거나 직접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시험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마4:3, 6, 9). 이는

청년의 때는 너무나 좋다. 참 아름다운 시절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나눈다. 인생을 설계하며 함께 미래를 말한다. 청춘 남녀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꿈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성간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항상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뭔가 새로운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이성교제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청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신앙인으로서 이성교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둘이다. 긍정적인 태도와 외면하는 태도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이성교제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이야기한다. 스스로없이 이 문제에 접근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의 대안을 적극 강구한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교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목표는 단지 이성교제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이 되겠는가 하는 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세상적인 이성교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이런 태도는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리적인 교백적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과 이성교제를 어떻게 삶에 연결시켜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을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태도와 다른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그 중요성을 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도 한다.

충현논단

기독교 청년의 이성교제, 이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자

이병각 목사(대학부 지도)



그러나 그것은 항상 내면적이다. 공개적이지 않다. 함께 생각하는 공동의 문제이기보다는 한 청춘 남녀 개인의 문제이다. 또 교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보다는 단지 한 개인이 겪는 일상적인 인생 문제이다. 한번쯤 고민한다.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할까? 한번쯤 기도한다. 그러나 그 다음은 모른다.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풍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소극적이고 외면하는 태도이다.

기독교 청년의 이성교제, 이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자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두말할 나위없이 전자의 태도이다.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이중적인 가치관을 용납하게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성교제가 달리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청년으로서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은 없다. 이것이 문제이다. 외면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심각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이성교제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성교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펴

자. 다행히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이성교제를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물론 아직은 문제만 제기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녀가 함께 자리를 하는 것조차 쑥스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라. 거기에 비하면, 이성교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우리 신앙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조금은 엿보인다.

이성교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과연 이성교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그 중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이성교제나 결혼이 인생의 모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나 결혼이 인생의 첫째 목표는 아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이다.

이성 친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성 친구가 모든 것을 채워주거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교제나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표나 된 듯이 안절부절하는 것을 본다. 이성교제나 결혼 없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

다. 그래야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성교제의 특권이 없이도 가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성교제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성교제는 올바른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성교제는 단지 청년의 육체적 정욕이나 일시적인 성적 충동 때문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성교제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결코 비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없다.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바람직하겠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대이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넷째, 혼전 성관계에 대한 명확하고도 바른 태도이다.

성경은 혼전성관계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가 진정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나 지나친 성적 접촉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실연의 문제이다.

결코 실연을 실패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원인을 생각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

는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적어도 위에서 지적한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가.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자기 정립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피흘려 값주고 사신 귀한 몸이다. 더욱이 청춘의 때는 귀하다. 청년의 이성교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 귀한 것을 사탄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성교제, 이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업인선교회특강

- 일시 : 5월 25일 저녁 7시
- 장소 : 만나홀
- 주제 : 두만강 개발 회의 참관을 통해 바라본 북한의 실정
- 강사 : 홍택기 집사(북방 지역경제지 편집주간)

충현도서관

도서 총정리 기간

충현도서관은 도서 총정리 기간을 정하고, 그동안 대출하여 반납 기간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반납 받고 있다.

· 기간 : 5월 17일 ~ 6월 30일

· 반납대상도서 : 92년 4월 30일 이전에 대출된 도서

· 반납 장소 : 충현도서관 (선교관 203호)

장로칼럼

북한 선교의 사명



조인세 장로
(예배대부 부장)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새 날을 허락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새 생명의 징후들이 농후한 마지막때에 처한 성도들에게 밝은 음영으로 드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완전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떠나고 그 자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던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제25: 41 ~ 46)

중국 심양에 사시는 한 동포가 북한에 사시는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가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지치오고 있는 그 친척의 무언의 권도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돌아와서 신앙 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칼에 농양이 생겼던 어떤 환자가 너무 아파서 할애 참을 이루지 못하고 뜨거운 온수를 달아뜨려 달래고 애원하였다는 게슴 아픈 이야기도 들립니다. 새끼 교포의 애동생이 할머니처럼 너무 늙어 버렸다면, 누나기 웃도 아픈집에서 빌려온 옷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얼마나 할렙고 굶주리는 일이 많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37년동안 동토의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 오듯이 하나님에 소원과 고요에서 자랐던 예

인,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순교적 신앙으로 주님의 제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참 깊은 신자들이 오히려 북한 땅에 많이 양육되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핍박, 박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꿀 수 없기 때문이며 인내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유언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땅 끝은 세계 각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제례적이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세계 각 민족 가운데 아무도 우리 한국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의 갈탄 목을 향해 주교 임취교 상처를 깨닫게 주고 기쁨을 발라주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는 땅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내가 여기 있세옵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호는 박영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6월 4일 - 기다려주십시오

송태근 목사(장년1부 지도)



장년1부(30세 ~ 40세)에서는 6월 4일 갈릴리홀에서 배가운동의 일환인 제3번 씨리즈로서 충현교회 30대 성도 모두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제1번 씨리즈 마리아·요한 전도회장 초청 (5월 10일)
- 제2번 씨리즈 장년1부 전도 찬송가 경연 대회 (5월 17일)
- 제3번 씨리즈 충현 30대 만남의 날 (6월 4일)

주제 :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부제 : 생명, 교제, 그리고 비전

이 날은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30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살아 있는 듯 보이나 '조화(造化)' 같은 죽은 삶이 있고, 뿌리를 그리스도에 심겨진 살아 있는 두 경우의 삶이 있습니다. 잡종자, 누리고자, 얻고자, 오르고자 눈 붙일 것을 없이 달리고 뛰기는 하지만 허상을 쫓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착각을 일으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달려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시간 낭비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뿐, 연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꼭 만나고 싶은 충현의 30대 성도 여러분, 이 날 오셔서 30대 여러분의 현 위치와 삶의 질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확인

하고 고치시면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준비와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1부를 맡은 지 여섯달 가량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느낄수록 민족의 장래와 21세기를 몇 년 앞둔 한국 교회 앞에 너무나 중요한 세대인 것을 매일 절감합니다.

운동으로 말하자면 30대는 본 게임을 위하여 하드 트레이닝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권투 시합의 승패는 링 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링에 오르기 전에 승패는 결정됩니다. 달리기, 줄넘기, 체중 감량 등에 실패하면 링에 올라와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5천년 역사를 강대국의 황포와 틈바구니 속에서 휘둘린 우리 민족 앞에 이제 우리는 균형 있고 건강한 시각으로 대안을 내야 합니다. 비판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기 쉬우나 대안은 아무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는 대안을 준비하고, 병든 역사와 병든 심정, 그리고 병든 민족을 고치는,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이나를 묻기 전에 그냥 우선 만남시다. 오셔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의 할 일을 고민하고 아직 우리 손에 땀이 있음을 굳게 확인해봅시다.

4월 27일 루디아전도회 제1지회 전도회원 28명은 정복인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지원 교회인 해병제일교회로 향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 신선한 공기를 한껏 마시며, 잠시 후에는 회원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기쁨의 얼굴들이었다.

도심지를 벗어나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에

도 소녀들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앞에서 그 섬세하신 창조의 섭리를 감사했다.

청룡회관 문화 장소에 이르러 준비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청룡부대 전차중대 중대장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전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중대원들의 배려로 전차 속으로 들어가보기도 하며, 어린이들처럼 즐거워 하였다. 이어서 예배드라는 장소로 향하여 기다리고 있던 전차 중대원들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군부대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영혼의 간절함을 호소하였다. 그 후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군중 류효근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충만하여 아멘으로 답하는 중대원들의 우렁찬 음성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다.

복음송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준비된 간식과 성경퀴즈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성령이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안 병장의 능숙한 찬양 인도와, 율동, 기타 반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예정된 시간 때문에

나는 군중 류효근 목사님의 헌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야간 근무에 임하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과 음료를 주며, 손을 잡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준다. 이런 봉사로 장병들이 많은 감화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전 해병의 60퍼센트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할렐루야! 황금어장에서 좋은 어망과 기술이 필요하듯이, 이러한 초전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

최전방 청룡 해병부대 방문기

황금어장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며

이수자 집사 (제1교구)



이쉬움을 남기고 중대장님과 중대원들의 송별을 받으며 최전방에 위치한 애기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강 건너(강폭 1.3km) 한 눈에 보이는 이북 마을이 황해남도 개풍군 마을임을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다. 온 산이 우리와는 달리 민둥산이었다. 월남하는 이북인들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방책인 듯하다.

이북에 고향을 둔 나는 이곳을 봄으로써 이 나라가 복음화로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나뭇배를 타고 고향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의 기도를 뜨겁게 드렸다. 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관광하면서 느낀 바 많겠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며 후원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각한다.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전도회원이 되어 제2의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발길을 옮겨 넓은 잔디밭에 아름답게 세워진 해병제일교회를 대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기도가 마을 속에서 터져나와 눈시울을 적셨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훌륭하신 목사님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라와 민족과 군복음화, 충현교회 주의 종들과 전도회를 위해서 불타듯 뜨거운 기도를 가진 후 사모님이 준비해 놓은 음료를 마신 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보름 전부터 우리 부부는 청지기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학년엔 저희 집 큰 아이가 훈련날인 5월 1일 소풍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풍을 가려면 어머니가 감밥도 싸주고, 간식도 챙겨주어야 합니다. 아내 백 집사는 계획을 만들어 뒷집에 살고 계신 타 교회 K 집사님께 아들의 감밥과 간식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4학년인 작은 아이에게 질 열쇠를 주면서 문 단속 잘하고 학교

에 다녀오라고 당부합니다. 저희는 가게와 살림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장사도 하루 휴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주시길 것을 믿고 저희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여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호트레제 있었지만,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일 없이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저희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통

하여 놀라운 여러가지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내 증인이 되라는 것과 '전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 청지기훈련을 수료하고 ◆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렵니다



이상혜 집사(제15교구)

"증인은 순교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뇌리를 스치는 성경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

도, 아! 바로 이것이 "내 증인"이란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는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자를 건져내려면 그 깊은 물에 자신이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

니 어느 사이엔가 내 두 눈에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콧물까지 흐릅니다. '집사에게 달라진 예수님, 찢기시고 찢리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과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무죄하신 몸이 대속의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벨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사랑하시게... 목이 메어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여주시옵소서. 아멘."